

“북·미 전쟁 땀 중국이 최대 피해자”

홍콩일간지 전쟁 위기론 보도 北 정권교체·방사능 유출 등 중국 혼란 초래 요소들 산재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과 한·일 모두 패자가 될 것이며 김씨 왕조는 물론 중국이 가장 큰 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경제일보는 22일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미국도 북한 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마련하면서 한반도에 전운

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개시하면 북한의 정권교체, 북한 핵시설의 방사능 유출, 북한사회의 폭동과 혼란 등 세 가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계가 밀접한 동맹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세 가지 상황 중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모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우선 김씨 왕조가 붕괴하고 북한에 과도 정권이 수립되면 남북통일이 될 수도 있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면 중국 코앞

인 압록강 변까지 진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후의 승부수로 핵시설을 폭파할 경우 100km 바깥에 있는 중국 접경지역과 동북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북한사회에 소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10만여 명의 난민이 생기면 대거 중국으로 넘어올 것이며 중국에도 혼란 정국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도 중미 관계의 급격한 악화, 금융시장 혼란 등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도 기회가 생기면 북한을 공격목표로 올리고 있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전술로 북한 미사일과 핵시설을 파괴하면 실제 충격과 치명적이지는 않다. 이에 따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북미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지지율 37%? 썸뚱!” 슈워제네거 트위터서 조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속’인 아널드 슈워제네거(사진)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조롱하고 그의 첫 국정 예산안을 대놓고 비판했다. 슈워제네거는 이날 공개한 40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오, 도널드! 지지율이 방금 들어왔는데 꼭 가라앉았네. 우아, 이제 30%대라고?”라며 비아냥거렸다. 최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역대 최저치인 37%에 그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어제의 적, 오늘의 동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맨 앞) 미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나사 지원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맨 왼쪽)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왼쪽 두번째)도 서명식에 참석해 우주개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자신이 한때 진행을 맡았던 NBC 방송의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 시즌 15의 낮은 시청률을 대놓고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쏠 셈이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시즌 1~14를 진행하면서 ‘넌 해고야’라는 말을 유행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슈워제네거의 진행으로 지난 1월 2일 첫 전파를 탄 어프렌티스 시즌 15의 첫 시청률이 낮게 나오자 곧바로 트위터에서 “시청률 머신인 DJT(도널드 존 트럼프)와 비교하면 슈워제네거는 짐볼했거나 회복 불능일 정도로 파괴됐다”고 비꼬았다.

더는 못 참아...민주당 ‘트럼프 탄핵’ 조짐

오바마 모함·러시아 내통 반발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트럼프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로 지난달 잠깐 제기됐다가 가라앉은 탄핵 목소리가 그의 ‘오바마 모함’ 허위 주장 논란과 미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계기로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탄핵 준비 태세(get ready for impeachment)”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히스패닉계인 호킨 카스트

로(텍사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문제 삼아 불신임과 탄핵 절차를 밟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척 슈머(뉴욕),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는 역풍을 우려해 탄핵과는 거리를 둔 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사과만 압박하고 있다. 코미 FBI 국장은 전날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앞서 히스패닉계인 호킨 카스트

로(텍사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문제 삼아 불신임과 탄핵 절차를 밟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척 슈머(뉴욕),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는 역풍을 우려해 탄핵과는 거리를 둔 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사과만 압박하고 있다. 코미 FBI 국장은 전날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앞서 히스패닉계인 호킨 카스트



죽음의 문턱서 건진 생명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20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지중해 리비아 연안에서 24건의 구조 작업을 펼친 끝에 3300여 명의 아프리카 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수일내 이탈리아 항구로 이송되면 울들어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수는 2만명에 육박.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가량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날 리비아 연안에서 보트가 서서히 가라앉는 가운데 한 난민이 어민으로부터 구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사상’ 공산당 당헌·헌법 포함 추진

‘시진핑(習近平) 사상’을 중국 공산당 당헌(당헌)과 국가 헌법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22일 보도했다.



공산당의 최고 규범인 당장은 1922년 7월 제2차 당 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적인 지도사상으로 삼아 제정됐다. 당장 개정은 수시로 이뤄졌으며 1945년 7차 당 대회에서 당장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더불어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 지도 사상으로 들어갔다. 이어 텐안먼(天安門) 사태를 딛고 남순화(南巡講話)를 단행해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시켰던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이 1997년 15차 당 대회에서 당장에 공식 지도사상으로 삼입됐다.

아울러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도 당의 지도사상 반열에 올랐다. 삼개대표론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영기업가를 포함한 ‘선진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층도 공산당에 입당할 기회를 얻게 하는 조치였다. 이 때 공산당의 성격이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면서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규정됐다. 또, 제18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당장에 들어갔다. 명보는 공산당 당장에 시진핑 사상이 포함되면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본인 이름이 들어간 지도이념을 가지는 3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나주, 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키후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회사 사정상, 싸고 좋은물건,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